

금주의 기도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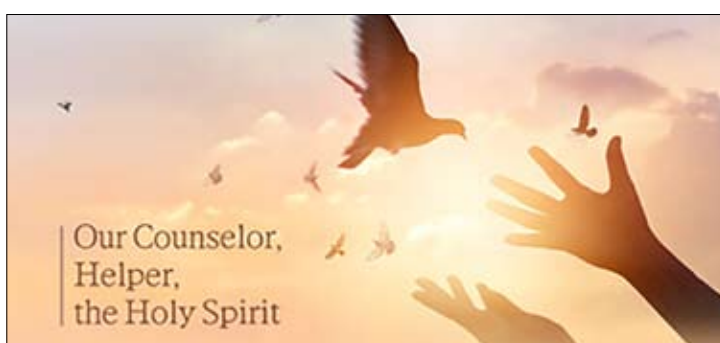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2019 성령강림절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지켜진 3대 절기들이 있다.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이 바로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수됐던 기독교 3대 절기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력 중심의 예배와 묵회보다는 세상의 달력에 의지하는 행사중심 묵회나 담임 목회자의 사역에 치중하다보면 교회력과는 전혀 무관한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일 일들이 많았다. 결국 분주하다보니 정작 기독교의 의미 깊은 날을 기억하며 이를 곱씹어보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더 비약하자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특히 부활 후 50일에 만나게 되는 오순절, 즉 성령강림절은 자꾸만 잊혀져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출23:14). 자손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뿐 아니라 신앙인들이 당대에 하나님의 광대한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 그 자체가 복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따라 다시 한번 성령강림절의 의미와 그 역사를 되새겨본다.

성령강림은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님은 창조 때에 함께 하였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나누주시고, 죄악과 불신으로 신을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시다.



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증거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5:6) 오소서, 성령이시여! 종교개혁자 칼빈에 따르면 성탄절, 부활절과 오순절은 성경적이고 주일이므로 지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의 관행도 사라지고, 또한 할례일과 수태고지일, 그리고 승천절의 절기준수도 점차 약화됐다.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의 소중한 전통으로 남았다. 또한 사

순절 준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청교도들 사이에서, 때론 개혁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절기준수 전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는 이 절기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세교회는 1년의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력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다.

(3면으로 계속)

미국인 사회주의 선호도 부상 중 뉴스위크, "국가발전에 기여" 여론 확산된다고 보도

사회주의가 국가를 위해 좋다고 믿는 미국인이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 남짓하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국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선호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43%는 어떤 식이

든 사회주의가 국가를 위해 좋다고 믿었고 51%는 사회주의가 국가에 나쁘다고 말했다(.POPULARITY OF SOCIALISM SPIKING IN U.S., WITH 43 PERCENT NOW SAYING IT WOULD BE GOOD FOR THE COUNTRY).

이번 갤럽 조사는 1942년 로퍼 여론조사 센터·포춘 여론조사 결과보다 미국인의 사회주의 지지 비율이 1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Four in 10 Americans Embrace Some Form of Socialism). 갤럽은 1942년 시행한 여론 조사를 두고 "사회주의를 향한 미국인의 태도를 측정할 가장 오래된 설문 조사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1942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엔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응답한 미국인도 11% 늘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사회주의에 관한 호불호를 밝히지 않은 미국인이 1942년에 비해 28%나 줄었다.



지난 4월 17-30일 조사를 한 갤럽은 응답자에게 향후 50년 동안 대다수 나라가 민주주의의 국가일지, 공산주의의 국가일지, 아니면 사회주의의 국가일지도 물었다. 그 결과 29%는 대다수 국가가 사회주의 정부를 택할 것이라고 믿었다. 1942년 조사에서 그렇게 응답한 비율은 14%였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그 외에도 미국인이 기술혁신, 부의 분배, 경제, 의료, 임금 문제에서는 정부의 통제보다 자유시장에 맡기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안은 소비

자의 온라인 사생활과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였다. 다른 사안에서는 응답자의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같았다. 미국 경제가 자유시장으로 기울었다는 비율은 34%, 정부 통제 쪽으로 치우쳤다는 비율은 40%였다. 또 25%는 자유시장과 정부가 미국 경제를 균등하게 떠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7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하나님에 주신 목소리... 김토마스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사(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강사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9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if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드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 카일 아이들먼 / 규장
- 나를 돌아보는 시간 / 김유비 / 규장
- 내게 힘을 주는 교회 / 한홍 / 규장
- 행복예수 / 김형석 / Denstory
-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발행인 칼럼

신뢰사회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식당가서 음식을 먹을 때 주방장을 의심하여 음식물을 조사하고 먹는 사람은 없다. 보스턴을 향하는 기차를 타고 "이 기차가 워싱턴으로 갈지 모르겠다"고 기관실문을 두드리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의사들의 조치와 말이 미덥지 못하다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거나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사와 다른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나라도 엉망이 될 것이다.

목회자나 성도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 전 버지니아의 한 교회를 섬기던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누구인가? "래디칼"이라는 책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제시해 왔고 그 자신도 부단히 참된 제자도를 추구하는 목사로 알려져왔다. 그런 그에게 지난 6월 2일 주일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목사님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는 소식을 갑작스레 듣게 된 것이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플랫 목사는 그를 회중들이 보는 강단 앞에 세우고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목사의 기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렇듯이 교회당 뒤이나 목사 사무실에서 기도하면 될 일을 굳이 강단 앞에 대통령을 불러 세워 기도했어야 했냐는 것이다. 모든 정치가가 그렇듯이 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비호하는 사람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강력한 정책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도의 형태는 플랫 목사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공정한 모습이 아니었고 나아가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 같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플랫 목사님도 당황했고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음을 그 다음날 밝혔다. 자신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를 했지만 그의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함을 드러내는 글을 썼다.

과연 플랫 목사님의 처음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서 사과성 글을 쓰는 것은 진짜 용기 있는 일이었는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누구나 당황해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과 행동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미처 작동하기 전에 급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때에도 변함없는 원칙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자칫하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내 원칙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옳다 그르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일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의 자리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목사의 어떤 선택에 대한 의구심, 성도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의구심이 늘 반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단보다 신뢰가 아름답다. 그 신뢰로 간혹 후회어린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하여도 판단의 사회보다 신뢰의 사회가 에덴동산의 원형임이 분명하다.

동성결혼, 이제는 지구촌 쟁점이다!

BBC, 존제이대학 에미 아담직 교수 기고 통해 전 세계 동성결혼 찬반 입장 소개

최근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자 수백 쌍이 혼인신고를 하며 이를 기념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최근 일이지만 대만 국민 다수는 동성끼리 법적 혹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응답자의 20%가 동성애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2013년 이러한 응답자의 비율은 두 배로 늘어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호주, 인도와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도 대중의 태도가 유연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대만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전면적인 입양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보다 엄격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국가도 있다. 동성간 관계가 불법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69개국이다. 지난 금요일 케냐 고등법원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옹호하는 판결이 나왔다.

BBC는 뉴욕 존제이칼리지 사회학/형사법 전문 에미 아담직 교수의 기고를 통해 지구촌 동성간 결혼에 대한 입장들을 알아봤다(Why are some places gay-friendly and not others?)

동성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점점 깊게 뿌리내리는 국가들도 있다. 동성간 성관계에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가나가 한 예다.

이곳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다. 2013년에 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는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공격적 제재는 그 국가의 국민들 혹은 사회의 리더들이 가진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지 이론은 국가 경제가 국민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LGBT의

났다.

민주주의에서는 평등, 공정한, 저항권 같은 원칙들이 정

다. 이들 국가가 동성간 결혼은 합법화의 최전선이었다.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이 그 예다.

이슬람이나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높다.

절반가량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에서는 동성간 성관계가 불법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국민의 60%와 98%가 "종교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높은 수치



경제발전, 민주주의, 종교 등 3가지 요인과 연결 세대교체, 관점변화, 대중미디어의 자유성 가속화

단조다. 예를 들어 부르나이에서는 남성들끼리 성관계를 한 이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게끔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적 측면과 사회적 분위기는 보다 느그러진 듯 해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집단을 말하는 용어) 공동체가 처한 현실은 별개의 문제인 국가들도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최근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혐오해 벌어진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 국가에서 LGBT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그만큼 많이 목숨을 잃었기에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가 왜 국가마다 다를까?

연구자들은 이를 경제 발전, 민주주의, 종교 등 세 가지 요인과 연결 짓곤 한다. 그 중 한

권리에 대한 입장도 포함된다.

국가가 가난할수록 덜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진 경우를 보게 된다. 기본적인 생존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쉽다. 사람들이 깨끗한 물, 식량, 쉼터, 안전 같은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되면, 타인에게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이 의존적인 성향은 "전통적인" 이성에 가족 구조 같은 가치 등을 더욱 지지하면서,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시킨다.

반면 보다 부유한 국가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곤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지, 자기표현을 믿을 수 있는지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동성간 관계에 포용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에서는 부유한 국가들이 보다 우호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

다. 부와 국민의 행동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게이나 레즈비언처럼 다르게 보이는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 포용되기 쉬워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슬로베니아와 러시아 같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관용적인 분위기를 신장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종교의 역할 또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서유럽 국가들은 신앙심이 상대적으로 덜 두터운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

다.

보다 부유하고 보다 민주적이며 사회가 덜 종교적인 국가들이 더 동성애를 더 받아들이려는 입장일지라도, 물론 예외는 있다.

중국이나 그 예다. 중국은 종교적 믿음이 낮은 사회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은 대만인들에 비해 게이들의 권리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발전, 민주주의,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1면에서 계속>
이 교회력은 두 가지의 중심 요소로 이뤄졌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력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모든 성인들의 날을 폐지했다. 이유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대강절-성탄절-주현절-사순절-고난주간-부활절-성삼위일체주일 같은 전통적 교회력은 그대로 지켰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는 지켰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개혁주의 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단연 부활절이다. 하지만 부활절과 더불어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 역시 매우 소중한



사회주의-43%(좋다) 대 51%(나쁘다)
기술혁신, 부의 분배, 경제, 의료, 임금문제는 자유시장에
온라인 사생활과 환경보호만 정부에

하게 여기는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력이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주의 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준수하고 있다. 성령강림절은 새로운 시대의 노래, 즉 주님의 재림을 기

다리는 지상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키면 덕이 될 좋은 교회절기다. 지상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교제를 기대하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령 없이 지

상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성령 없이는 말씀설교도 신앙교육도 복음전도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일으켜 순종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신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라곤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죽은 이후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구원의 마지막 사건인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론

5G 시대의 목회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유소년 시절의 일이지만 나는 청색전화, 백색전화를 운운하던 시절을 살았다. 대학생 때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당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전화를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선으로 통신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90년으로 기억하는데 해외여행을 가서 손에 무선기 같이 커다란 통을 들고 길거리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쳐다본 기억도 난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그 커다란 통을 들고 마치 자랑하듯이 전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그 시절에 그 통은 자랑거리였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통이 정말 작아졌고 이제는 접을 수 있을 만큼 손 안에 들어오는 시대가 곧 열린다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더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달려 사는 형국이다. 이제는 모든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GPS가 없으면 운전조차 할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상용화된다고 하는 5G(Generation)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광고가 모두 5G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1G는 음성만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던 핸드폰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G는 음성과 문자를 송수신하는 핸드폰과 배배의 결합 시대에 사용되었다. 여기까지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3G 시대에 돌입했다. 3G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4G시대(LTE)다. 예전보다 열 배나 빠르게 음성과 문자,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 앞으로 이동통신의 진화를 완성한다는 5G시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1차선 도로가 10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다.

5G의 핵심을 요약하면 세 가지다. 우선 초고속이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 기존보다 만 배 이상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이 된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 받는 데 1초면 된다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초저지연성이다. 스마트폰에서 보낸 데이터가 다시 단말기로 돌아오는 시간이 엄청 짧아진다.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것도 초저지연성 때문이다. 5G의 지연시간이 0.001초라고 하니 우리의 감각기관 중 가장 빠른 청각 반응시간(0.17초)보다 얼마나 빠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 셋째는 초연결성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개념이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다. 편리함이 극대화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 5G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기우일까?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출애굽 3세대 현실'이라는 말이 있다. 광야 세대가 1세대, 가나안 땅 세대가 2세대라고 한다면 출애굽 3세대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면 정확할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출애굽 3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현실과 5G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위 출애굽 3세대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제대로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thechoi82@yahoo.com

미국인 사회주의 선호도 부상중

<1면에서 계속>
미국 의회가 지적했듯이 이번 갤럽 조사 결과는 바로 얼마 전 먼머스대학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먼머스대학 조사에서는 사회주의가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상당히 높았다. 먼머스대학이 미국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42%가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고 1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의 관점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비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2020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당)이 거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같은 나라를 지칭하



는 듯 "서반구에 사회주의의 황혼기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위대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고 믿고 싶다.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사회주의다."

동성결혼, 이제는 지구촌 쟁점이다!

<2면에서 계속>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분위기와 정책은 왜 이토록 크게 변했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의견은 구세대가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로 대체되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관점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가속화한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텔레비전에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등장해 꽤 대중적 인기를 얻은 캐릭터나 인물들이 있다. 시트콤 '윌 앤드 그레이스'의 윌이나 엘런 드제너러스 같은 인물이 그 예다. 동성애자를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대중문화가 가상으로나마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해준 것이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면 마냥 혐오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동성애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93년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22%의 응답자가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동성애자

가 있다고 답했다. 2013년에는 이렇게 답한 이들이 65%에 달했다.

<13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신 분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온라인: <http://www.daviskoreanchurch.org/dkpcsc>
우편: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제출 기한: 2019년 7월 20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출은 e-mail (dkpcsc@gmail.com) 로 해주세요.

데이비스 한인교회 청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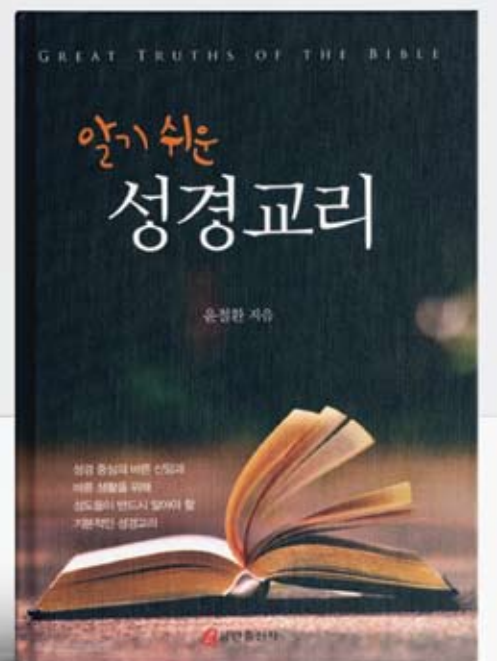


Davis Korean Church
603 L Street Davis, CA 95616

GREAT TRUTHS OF THE BIBLE 알기쉬운 성경교리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교리

윤철환 지음



도서 주문 연락처: 215-527-2250
chulhwanyoon@gmail.com

가격: \$20.00(운송료 포함)

*선교사와 신학생은 \$10.00

성경교리는 성경의 뼈대와 같은 것으로, 성경교리를 바로 알면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단 사상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_머리말에서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손수건

베니스에 있는 페니체(Teatro Fenice) 극장에서 정명훈 선생이 지휘하는 오텔로를 관람했다. 인간 본성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탁월한 지휘로 나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오텔로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오페라로 만들었다. 작곡가 베르디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노년에 작곡한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 악을 도모하는 치열한 전개가 세상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게 한다.

오텔로는 무어인으로 베니스의 장군이다. 무어인이란 피

부색이 까무잡잡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나 알제리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이방인이 베니스 공국의 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인가를 가늠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한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오텔로는 사이프러스의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방인이 최고의 장군으로 명성과 인기를 얻고 있으니 당연이 질투하는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색이 무색무

취해야 할 바티칸도 불란서의 필립 왕이나 독일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임명하는 자국의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극렬하게 반대하곤 했다.

오텔로를 시기하는 무리는 기수 이야고와 베니스의 귀족 청년 로드리고다. 이야고는 오텔로의 미남 부관 카시오 때문에 부관이 되지못했고 로드리고는 평소 연모하던 베니스의 귀족가문이요, 미녀인 데스테모나가 오텔로와 결혼함으로써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연유로 두 사람은 의기투합되어 무어인 오텔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도모했다.

즉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오텔로의 부관 카시오를 초청했다. 그리고 카시오를 만취하게 하여 로드리고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선 전 총독은 카시오의 칼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런 부하의 추태를 보고 오텔로는 부관 카시오를 직위해제하여 버렸다.

직위해제를 당한 카시오에게 이야고는 오텔로의 부인, 데스테모나에게 용서를 간청해보라고 충고했다. 이 요청을

좋게 여긴 카시오는 정원에서 데스테모나에게 남편에게 간청하여 용서하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이야고는 오텔로로 하여금 이런 은밀한 광경을 보게 하여 질투심을 유발하게 했다.

오텔로는 이방인 출신으로 아름다운 베니스의 여인 데스테모나와 결혼하였으니 부인을 사랑하는 만큼 불안전한 마음도 굉장하였을 것이다. 마음도 흥분하였다. 결국 침실에서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가슴을 칼로 찔러 자살하였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전 엉금엉금 기어가 아내의 발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 작은 천 조각으로 만든 손수건 하나 때문에 말이다.

대사가 오텔로의 공적을 칭송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간교한 이야고, 그것은 뱀을 통해 유전된 악한 전술이다. 뱀은 간교했다고 했다. 그 간교함을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함으로 죽어갔을까 싶다. 세익스피어는 4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발굴하여 소설을 썼는데 이 시

대에도 이것을 무기로 이웃을 상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을 까 싶다.

베니스에는 과거 오텔로가 살았던 집이 있다. 배를 타고 산마르코를 갈 때 왼편으로 카지노를 보게 되는데 그 옆 흰 건물이 바로 오텔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아내, 베니스의 지체 높은 귀족이요, 아름다운 여인, 자신과 같은 이방인이 낯볼 수 없는 신분의 여인을 사랑한다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깨닫게 한다.

더 나아가 질투가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하는지를 오페라는 우리에게 교훈한다. 작은 천으로 만든 손수건 하나가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또 한 두 사람을 질투에 눈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야고도 평생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다. 질투가 투영될 때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지를 오페라는 우리에게 교훈한다. 작고 하찮은 손수건 하나로 인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경종 목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서 서로 사랑할 때'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를 부르며 네 얼굴을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의 다정함에 비유하면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에서 '소리'라는 말은 '달콤하다' 혹은 '기쁨을 준다'라는 것으로 성도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병어리 신부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행복이

영혼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우리는 항상 신앙 되시는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아침마다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소리로 감사 찬송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포도꽃 필 무렵에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우들이 하도 많아서 포도원을 망

전5:8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안팎으로 공격해옵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트리려 합니다. 이미 창세 이후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면 마귀는 육신의 오감을 자극하며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으로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맞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세상 속에 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싸워서 물리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여우는 우리 마음에 이미 숨어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작은 여우를 품고 태어납니다. 다행이 어떤 사람은 일찍이 신앙으로 작은 여우가 있음을 알고 물리치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은 여우의 교활함과 거짓에 속아서 오히려 그 종자가 번식하여 온통 여우 소굴이 되어버린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딤후 1: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등한 위치로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착한 양심 앞에 자유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인 착한 양심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 때가 지금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착한 양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엡 5: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안팎으로 있음을 알고,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며 싸워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logosnews@hotmail.com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17절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 동상 하나가 서있는데, 관광객들은 묘하게 생긴 이 동상을 보고 처음에는 모두 웃는답니다. 하지만 그 밑의 글을 보고는 많은 '감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상의 형상을 보면 앞머리는 술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양손엔 각각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그 모습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회라고 여겨질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며 일단 지나가고 나면 붙잡지 못하도록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양발 뒤꿈치의 날개는 기회를 잡은 사람과는 높이 날아오르고 기회를 놓친 사람으로부터는 재빨리 도망치기 위함이라고 하니 찾아온 기회를 잘 포착해야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때'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믿음의 기회도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 때가 바로 '언제나, 늘, 항상'이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바로 지금, 오늘 현재'입니다. 고후6: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주님의 애뜻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주님의 초청에 화답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성도의 모형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술람미 여인은 뛰어난 미모도 없고 삶의 배경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농부의 딸로 천한 신분 가진 여인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 솔로몬 왕이 찾아왔는데, 솔로몬은 그만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한 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기는 더욱 사랑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신했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스바냐 3: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으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이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바냐 3: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가 아

닐까요? 성도된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의 연약을 붙잡을 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자신의 방법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벤전 4: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어 성경은 "Deeply"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깊이 혹은 강하게' 라는 뜻으로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깊이, 진실로 사랑하는 길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받아 "말씀 안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대화가 아닐까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속삭임, 사랑의 표현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정한 대화 즉 은혜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로 대화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은 행복할라 없습니니다. 이처럼 기도가 멈춰버린

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해집어 놓고 꽃을 다 떨어지게 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생활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우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마디로 여우는 교활하며 간교합니다. 의심이 많고 가식적이며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잘 보이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작은 여우로 비유된 말씀이 벤

1.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나 삶의 현장에 거친 들과 같은 원치 않은 어려움이 밀어 당치기도 하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들이 사랑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족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위기가 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엡3:1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매춘부까지 고용한 낙태 대기업 Planned Parenthood, 어디까지 가려는가?

데일리메일에 보도된 충격적 주장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낙태 제공기업 중 하나인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이 공식 행사에 참석한 직원, 기부자 및 손님들을 위해 매춘부 고용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에 상영된 "Unplanned(실화바탕)" 영화를 통해 플랜드 패렌후드(Planned Parenthood)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스캔들

지난 1월,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낙태 거대기업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성적 부정행위와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무려 1억32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플랜드 패렌후드에 지급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 다.

부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낙태기업의 최대 해외관할사무소 중 한 곳에서 성희롱, 괴롭힘, 학대 행위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한 여성 간부에게는 그녀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 학대 및 성매매, 성상납 혐의 현재 이 의혹으로 해임된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Lucien Kouakou는 IPPF가 몇 년 동안 아프리카 행사장에서 손님들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주장도 했습니다.

많은 문서와 검증된 내용 중 하나는 지난 2월 제출된 케냐 법원문서에서도 "이전 플랜드 패렌후드(PP) 리더십 하에서 이 지역이 '조직의 공식 업무 중 손님들을 위해 매춘부들의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IPPF

이 단체에 대한 초기의 혐의들은 자선 위원회가 규제준수 여부에 관한 케이스를 시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영국 잡지 The Third Sector에 따르면, 스캔들의 규모는 단체 이사인 Bermejo 가 사임할 정도로 큼니다(그는 최근 IPPF의 변혁을 주도하고 싶으면서 사임 의사를 철회함). 부패와 스캔들의 수위는 또한 미국, 아

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의 45개 회원 협회가 런던에 본부를 둔 연방(federation)에서의 탈퇴를 이끌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직원들은 "IPPF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낙태, Safe Sex," 어쩌면 이런 단어들은 매혹적이고 세련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플랜드패렌후드가 전하는 매혹적인 말과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전혀 안전하지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낙태기업에 들어가던 자금을 차단시키고 여성클리닉으로 자금을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감사하게도 영국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은 지금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의 존엄성" 운동 지휘아래,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플랜드

아야할 권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초/기본적인 권리이다! A Baby's Right to Live [is] the Most Basic Right There i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민주당에서는 이미 36번째 "태아살인 방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참조: http://tvnext.org/2019/05/anti-infanticide-bill/),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뽑혔던 연방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드패렌후드로 가는 자금 차단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에 강렬히 반기를 들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알고 기도...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플랜드 패렌후드 기업의 도덕성이 이전 국제적인 규모의 충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플랜드패렌후드가 마치 사회의 정의(여성운동)를 실현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 무지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태아의 장기를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공식 행사에 참석한 자들에게 '성상납'을 한다는 것은 이미 플랜드패렌후드가 앞에서 외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단체가 아닌 여성을 도구화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악한 기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하루빨리 이 단체의 드러난 진실을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적 문란함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성 교육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번에 캘리포니아 민주당에서 나온 AB 624이라는 법안에 의해 모든 초등학교들이 학생들 뒤에 플랜드패렌후드 전화번호를 이머전시 번호로 가지고 다니고, SB24(Chemical Abortion Bill)에 의해 대학교안에 위험한 시술소가 생겨난다는 사실이 소름끼치도록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Tvnext.org에 가서 참조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여성 리더입니다. 지난주에 그룹멤버 중에 아픈 자매가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도 되는지요?
-필로스 버디스에서 김

A: 성경공부 그룹리더로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사역에 임하시는 자매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에 투자하는 사역인데 첫째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전도요 그 다음이 어린 크리스천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삼는 사역입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다가 그룹멤버 중에 아픈 자매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기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자매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세요.

신유에 대하여 파이퍼는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병 고치는 은사로서의 신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느 무명의 목사님이 쓴 책 "영적 성장과 영적 예배"(도서출판 바울, 2001, p.271-272)란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분이 기도원에 입산하여 기도하는데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져 뇌혈관을 다친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아내인 할머니의 인도로 기도원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계속 그 노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해주

치유은사 없어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보니 노인의 팔과 손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한쪽 팔은 가슴에 거의 붙다시피 했고 손가락은 갈퀴처럼 구부러진 채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노인의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때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노인의 다섯 손가락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자의 팔의 관절도 기도할 때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때 세수를 하고 돌아온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눈길에 넘어져 팔을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관절이 굳어져 수술조차 힘들다는 말을 듣고 굳어진 채로 17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날 아침에 그 노인의 팔과 손가락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노인과 그 노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은 신유의 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유의 역사는 늘 있거나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이고 대규모의 신유의 사역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유의 은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신유위한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없다고 영분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악가가 아니라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전문요리사가 아니라고 요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은사가 없다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치유은사가 없어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 수가 많습니 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현장에서 이런 일을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7.7cm × 11.7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1/8	7.7cm × 5.8cm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브라즈 바카(BRAJ BHAKHA)



윤리 언어 종교 그리고 사회의 한 그룹으로써, 인도는 모자이크와 같이, 비교적 다양하고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도를 묘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전체인구가 무려 9억3천5백만 명에 달하며, 인구밀도 또한 1평방마일당 762명이나 되는 고밀도 지역이다. 인도는 히말라야, 북부 강-평야지대, 데칸 그리고 동서가트 산악지역 등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수많은 지역

적 특색과 기후조건 등은 계절적으로나 지역적인 면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온도는 열대성에서부터 극한의 온도까지 높은 지역 온도를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인도의 문명 속에서 1천4백6십만명의 브라즈 바카족을 찾을 수 있다. 주로 비하르, 마드해 프레데쉬, 우트라 프레데쉬 지역에 거주하는 그들은 사용언어가 인도-아리아어(Indo-Aryan)에서 파생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생활방식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전체 인구의 73% 정도가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형태가 대부분 소규모이

거나 하찮은 수준이어서,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뿐 아니라, 자급자족하기에도 모자란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목축업은 농업경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은 주로 뿔 달린 가축이나 당나귀, 말, 들소 등을 주로 기른다. 하지만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축들을 먹는 것은 금기시되며, 대부분 가축들은 집을 운반하거나 교통수단의 하나로 사용된다.

수많은 브라즈 바카족이 살고 있는 우트라 프레데쉬 지역에는 7개의 힌두성지 중 하리드와, 마투라, 바라나시, 아요드하 등 7개의 힌두성지 중 4개를 보유한 지역이다. 그중 아요드하는 라마신과 비슈뉴(힌두교 3대신 중 하나, 세계의 보호, 보존자)를 믿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비하르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브라즈 바카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쌀, 보리, 옥수수, 사탕수수, 밀 등을 재배한다. 인도문화는 힌두교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다. 카스트 신

분제도를 포함한 여러 힌두교의 특색들이 인도문화 곳곳에 숨어있다. 참고로 카스트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삶, 인생, 양육 등의 뜻을 가진 단어다. 인도사회는 카스트제 안에서 같은 신분끼리의 결혼을 원칙으로 한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카스트의 신분은 그들의 직업이나 신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인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 카스트제도는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카스트제 안에서 브라즈 바카족에 대한 위치나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들만의 생활방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그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앙
브라즈 바카족의 99.5%가 힌두교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힌두니즘의 뜻과 기원을 무엇일까? AD 1200년경부터 힌두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힌두교라는 종교 자체가 갖는 의미나 기원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창시자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 서양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힌두니즘은 그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전통이 부족한 면을 보인다. 수백년을 거치는 동안 힌두교의 관습이나 믿음, 여러 모습들이 변화를 겪어 왔는데, 특히 오랜 세월을 걸쳐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 특정한 교조와 체계를 갖지 못했으며, 다양한 신화와 의례제도 및 관습 등을 포함한 민간신앙의 복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초월적 존재,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누군가가 평생을 채식주의자로 사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사원에서 신께 바칠 제물을 위해 기꺼이 육식을 먹기도 하고(힌두교도들은 대부분 채식주의자들이지만, 전 세계인 크샤트리아들은 육식을 해도 신분에 손상을 입

지 않는다고 한다), 누군가에 게는 종교가 매우 개인적인 일에 지나지 않지만, 누군가에 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힌두교인들의 삶이다. 힌두교인들 대부분은 그들의 3대신인 브라만(창조자), 비슈뉴(보존, 보호자), 시바(파괴자)와 샵트리어신을 숭배한다. 또한 다른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며 그들의 친척, 배우자, 성육신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섬기기도 한다. 환생 안에서의 믿음은 힌두교에서 일원화되지 않은 특성 중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브라즈 바카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새로운 신약성서를 갖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 전체 인구의 1% 밖에 되지 않는 미비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선 더욱 많은 기독교적 정보의 제공과 함께 브라즈 바카족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 활동과 종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무부,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붙여..."

미국 국무부가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무지개 깃발을 내걸어도 되느냐는 각국 미 대사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관례처럼 이어져 오던 무지개 깃발 게양을 지난해 승인 대상으로 바꾼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불허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WP는 이날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 올해 이스라엘, 독일, 브라질, 라트비아 등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어도 되느냐고 본부에 문의가 왔지만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원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대사관 차원에서 알아서 결정해도 되는 사안이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부터 본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공문이 각 대사관에 배포됐고 작년에는 대사관의 요청이 모두 수용됐지만 올해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대부분의 대사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일부 대사관에서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있다면서 저항의 의미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건물 전면엔 무지개 깃발이 게시됐으며 인도 센나이의 총영사관에도 마찬가지로 전했다. 인도 뉴델리의 미국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조명을 설치했고 오스트리아 빈의 대사관 웹사이트에도 성조기 밑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루살렘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진에 동참했으며 일부 대사들은 현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WP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성명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았다면서 그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공화당 소속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금지하려 하는 등 성소수자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영국 주류교회 쇠퇴, 아프리카오순절과 힐송 성장

영국에서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와 힐송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티투데이(CT)가 최근 보도했다. 반면 영국 성공회와 같은 기존의 교회들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3대 교단은 영국 성공회와 장로교, 로마 가톨릭이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16% 감소했다. 그러나 '힐송 런던 캠퍼스'와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힐송 캠퍼스는 호주의 힐송교회가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 캠퍼스 중 하나다. '힐송 뉴욕' '힐송 이스라엘' 등 해외 캠퍼스가 있다.



런던 도미니언 극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힐송 런던' 예배에는 5000명이 모인다. 이 중 70%가 25세 미만으로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최근 힐송 런던은 예배 장소가 협소해 두 곳의 극장을 추가로 빌렸다. 로버트 벡포드 영국 캔터베리대 신학 교수를 '젊은이들이 힐송의 실제적인 설교와 역동적인 예배에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는 '동일 언어 공동체'가 성장의 이유다. 교회 성장 전문가 도널드 맥가브란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로마가톨릭, 주기도문 일부 변경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일부 변경을 공식 허용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허용한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이다.



더 유에스카톨릭(US Catholic)은 '교황청이 지난 5월 22일, 16년 간 연구를 통해 신학적, 목회적, 그리고 형식적 관점에서 현재의 번역에 있는 오류를 발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법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주기도문 후반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지지를 보였다. 당시 그는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처럼 묘사한 이 번역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자는 사탄이다. 이것은 사탄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영문이 기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에서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장신대학교 김철홍 교수(신약학)는 "주기도문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기보다 고난과 핍박과 같은 'painful trial'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하나님도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 진흙과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험'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무스(πειρασμός)이고, 동사로 페이라조(πειράζω)이다. 이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등 구약에 자주 나온다"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소개했다(창22:1, 출15:25, 시26:2). 또 '신약성경에서도 '시험'은 제자들의 삶의 피할 수 없는 특성이었다. 예수님도 시험 가운데 계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단련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간청이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일상적이었던 당시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도 맞다.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용례와 히브리어 단어를 고려했을 때, 주기도문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으로만 보는 것은 좁은 이해이다. 사단의 시험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톨릭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동일한 선상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주기도문을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전적 가능...김정은에 열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며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며 김 위원장에게 제2차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혼선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에 "전적으로 가능하며 정말로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준비될 때 우리도 준비되는 것"이라며 "그들이(3차 북미정상회담) 열쇠를 잡고싶은 언제든지(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경제적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고(협상의) 문을 열어줬다"면서 "그들이 해야하는 것은 핵무기 추구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은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최대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노출했던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내가 2006년에 첫 유엔 제재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를 안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27일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나는 다르게 본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아마도 유엔결의 위반일 것"이라며 애매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북정책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일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는 사실이다. 그들은(ICBM)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허위정보를 심고 대통령과 참모가 분열됐다고 말하려 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놀랍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정책 혼선 보도를 북한의 탓으로 돌렸다. 볼턴 보좌관은 뉴욕타임스(NYT)가 자신의 나루히토 일왕 추최 국민만찬 불참을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정책 불일치의 일환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감기에 걸려서 만찬에 가지 않았고 감기를 떨쳐내려고 자고 있었지만(그들은)은 물어보지 않더라"라고 해명했다. 그는 "숨은 진실은 이것이다. 외교정책에 있어 동맹국 내에도 불일치가 있고(원래)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나는 국가안보보좌관이고 국가안보결정권자가 아니다. 모두 작동방식을 이해한다고 본다"고 제2차 강조했다.

미국, 대만을 국가로 공식지칭...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이 지금까지 존중해오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것에서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의 영자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이 파드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적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와 함께 대만을 포함시켰다"고 7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이들 네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썼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적은 있지만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MP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를 인정하며 기존 원칙을 부정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돼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SCMP는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미 국방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러 차례 흔들며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리를 직접 만났다. 미국은 또 대만에 총 20억 달러(2조3560억원)의 무기를 판매할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태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5. 염광섭(1895-1981)

염광섭은 1895년 12월 5일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휘문의숙을 졸업하고 1914년 유학차 도미하여 1916년에 미국 미시시피 주 메리안의 메리안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과 피아노를 전공하다가 켄터키 주 월모어에 있는 아쉬버리 대학에서 수학했고 1919년에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청년 염광섭 (1926년)

달러를 헌금했다. 이듬해 3.1독립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김창준 목사가 유학차 시카고에 도착

이해 여름 아이오와주 드모인에서 열린 선교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했을 때 동족 유학생들끼리 연락 유대를 가지고 있음을 안 후 한인 유학생 모임을 구상하면서 시카고를 방문하였다.

시카고 기도처 인도자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마친 염광섭은 한인유학생회를 구상하면서 1922년에 시카고대학에 입학했다. 이 무렵 그는 레인 팍 예비뉴 39가의 김일선 부부가 경영하던 셋집의 방 하나를 무상으로 얻어 타 지방에서 학비를 벌러 시카고에 오던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학생센터를 꾸미고 이 방에서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이 기도회는 교역자 없이 진행되었으나 신학을 공부한 염광섭의 지도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듬해 시카고 북쪽 링컨 예비뉴의 강영소의 집에서 또 다른 기도회도 있었는데 염광섭은 황창하와 현정영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염광섭은 1923년에 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시카고 한인교회 전도사

1923년 10월 북쪽 기도회 주최로 공동회가 열렸을 때 시카고에 한인교회 설립을 결의하고 이를 위하여 111달러의 헌금을 모았다. 그때 북미 유학생 총회장이었던 염광섭은 거금 25

배 후 행정부와 이사부를 조직했다.

염광섭은 장세운과 함께 전도사로 피선되어 담임목사 김창준과 전도목사 조희영과 함께 교회를 섬겼다. 그의 전도사직은 1928년 말까지였으니 3년 5개월간이었다.

1926년 1월 1일 하오 6시에 이사 김 경이 경영하는 워싱턴 카페테리아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축하회가 있었다. 애국가를 부른 후 양득과 김 경이 개회사를 한 후 염광섭이 '객지에 당하는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이날 연설에는 황에스터의 '신년 신월 신일'과 김창준 목사의 '내 동포도 있었다. 독창 등 음악순서도 있었고, 여흥회도 있었다.

그해 9월 4일 슈즈 감리사가 설교하고 성만찬을 집전했다. 이는 본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성만찬이었는데, 염광섭에게도 처음 있는 성만찬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김창준 목사는 한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시카고 한인교회 시무 당시 미국 감리교단의 정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할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달에 시카고대학 박사원에서 다년간 종교철학을 연구하는 염광섭이 주미 학생회 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전도를 위하여 상황과 나성을 방문하였다. 이후 보컨대 그는 학생회를 위한 전도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본다.

염광섭이 결혼한 1927년의 12월 2일에 본 교회 영접 위원이었던 그는 다른 세 명과 함께 시카고 서북 정거장에 나가 김창준 목사의 후임으로 은 한승근 목사를 영접했다. 한 목사

년 2월 본 교회 이사부 부장 염광섭이 임시 담임 교역자로 선정되었다. 당시는 담임 교역자를 목사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교인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인의 정식 입교식을 거행하였고, 행정부를 두고 그 안에 전도부, 예배 유사부, 교회 기사부, 엠뮬 리그부, 음악부 그리고 교인 모집부를 두어 일반 교우들과 같이 모든 교역을 협동하기로 하였다.

1931년 현재, 유학생으로는 시카고 대학의 장세운, 최경식, 위해진, 길진주, 김매리, 서북대학의 김명선, 김훈, 이복원, 갈홍기, 정경옥, 황보의, 루이스 대학의 양일태, 김태선, 김창순, 김봉성, 김호철, 이웅영, 이종숙, 이재백, 박정우, 남궁탁, 노스파 대학의 한세광, 김옥문, 백남봉, 맥코믹 장로교신학교의 강택모, 이규용, 김인준, 문찬규, 사범학교의 위월렌, 미술학원의 박영지, 미션 체육 대학에 김근명, 벅부의 임캐틀라인, 김헬렌, 전헬렌, 아메리칸 음악대학의 윤기성 등이 있었고, 재학하지 않은 학생으로 임기선과 조봉환과 차의불레 등이 있었다. 이들 모든 유학생은 본 교회 교인으로 보편 될 것이다.

염광섭의 목회 기간 가장 뛰어난 업적은 예배당 마련이었다. 미국 북감리교회자 옥데일 예비뉴 가옥을 14,000달러에 매입하고 이를 시카고 한인교회가 사용하였다. 광이 35척, 장이 150척의 대지에 2층 붉은 벽돌 집인데 상층에 예배실, 침실 2칸, 목욕실 1칸이 있고 하층에 사무실 1칸, 침실 1칸, 도서실 1칸, 식당 1칸, 주방 1칸이 있었으며, 식당 뒤로 침실 3, 4칸을 더 들인 한 공간이 있었다. 이

"...원래 교우가 소수인 중 과반이 학생이므로 재정 구비의 능력이 심히 잔핍하여 원근에 계신 일반 부모 형제지매의 은혜로운 방조를 불가불 청케 되었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전무 후무할 이것이 한 번이올시다. 우리 직원 일동의 열망도 생각하시려니와 우리 시카고 형제의 터를 잡아주시는 그 일에 한 분이 되시기로 유념하시어 다소간 동정해 주심을 깊이 믿고 바라나이다.

1931년 4월 23일"

6월 14일 하오 2시에 엠뮬 청년회 주최로 성대한 예배가 진행됐다. 회장 강세운 여사의 사회 하에 일동이 찬송가를 부른 후 조원림의 나팔 독주, 방창덕의 독창, 위해진의 설교, 김베세와 라수사나의 듀엣, 일동의 찬송, 염광섭의 지방학생 소개, 수전, 박영애의 독창, 광고가 이어졌다. 폐회 후 부인들이 굽다랗게 말아온 냉면을 먹었다. 그달 22일 저녁 에반스톤에 있는 전태우의 집에 도상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져 전선주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약 3주간 치료의 중상이었는데 다행히 1주일 만에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해 7월 교회 강당 수리에 착수하여 변칙한 흰 벽과 천장, 그리고 전에 없던 강대를 새로이 설계하여 교회의 외면을 일신하여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달에 새로 피선된 이사로는 염광섭이 3년 임기로 선정되었고, 기타 3년조, 2년조, 1년조로 구분하여 8명이 더 있었다. 그해 8월 본 교회 갈홍기 목사가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로 피선되어 염광섭의 목회는 6개월간이었다.

서울대학교 교수

염광섭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카고대학 심리학과 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43년에 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1947년 2월에 그는 국무성의 알선으로 미군정 고문이 되어 미군수송선으로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해 3월에 유억겸과 안동원이 영보 그림에서 그를 위한 환영회를 개최하였고, 두 달 뒤 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신분석과 교수가 되어 '멘탈테스트의 수학적 기초'라는 영어강좌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강의했다. 그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내 중학교 교장과 교사 50여 명을 상대로 임시제도 개량 신방법 강습회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울 문리대 심리학 교실에서 열렸는데 강사는 염광섭이었다.

그 후 염광섭은 아내 트레바 글스니클과 도미하였고, 1981년에 향년 86세로 시카고 인근에서 별세했다. damien.sohn@gmail.com

시카고한인교회 임시담임으로 사역시 예배당 마련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직...1947년 서울대 교수로

하자 교회를 설립하려는 의논이 실현되었다.

염광섭이 사전에 교섭한 후 7월 23일에 그가 김 경, 강영소, 이태성과 함께 락 리버 연회의 선교총회 회장이자 개렛 신학교 교장이었던 호겔트 박사를 만났을 때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되 목사의 사례비는 선교부가 책임하기로 하였다.

1924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서부 청년회 강당에서 교회 설립식이 있었다. 그런데 본 교회는 락 리버 연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찬미 224장을 부른 후 사회자였던 염광섭이 기도했다. 그 후 강영소의 교회 설립취지, 김예택의 주악, 연보, 차의석의 성서낭독, 광성학교 교장 김득수의 설교, 오한영의 솔로 그리고 하와이청년회 총무 이태성의 축사에 이어 시카고한인교회 설립을 공포했다. 이후 일동의 140장 찬미, 각 단체 대표자의 축사, 일동의 3장 찬미로 마쳤다. 예

는 감리교단의 파송 목사였다.

이듬해 이사회 이사의 한 명으로 염광섭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그해 3월 30일에 그의 부인 문로라가 임신 중 독감에 아기와 함께 세상을 영별했는데 신한민보의 보도대로 "염광섭군의 고분지탄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 없었다."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

1930년 4월에 이화전문학교 교장 아펜젤러가 본 교회 예배시간에 조선 여자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한 다음 날 저녁에 만찬회에서 염광섭이 정한경과 박로영, 김명선과 함께 감상담을 말했다. 그해 7월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염광섭을 위한 박사 축하회가 본 교회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그해 9월에 2년 임기의 본 교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목회자 선정이 어려운 가운데 1931



연로한 염광섭

로써 염광섭이 한인 유학생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한인교회는 그해 5월에 이 건물의 수리비 7백 달러를 미주 동포에게 헌금해 줄 것을 이사부 부장 염광섭과 위원 7명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호소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525-7767, HP (0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6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평1동 34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340-4(404-270)	승중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 서초구 인치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신협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2(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0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령시로3길 50-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42-6881, Fax. (02)1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리더십 코멘터리 (90)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목회리더십의 성경적 솔루션

목회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성경적 분석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독단적 교회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리더십의 개혁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치는 리더십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목회리더십의 위기를 경고한다.

①리더의 가치관이 혼돈되면 팔로워의 가치관도 함께 혼돈에 빠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

정치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망하는 길이다.

목회리더십은 인격적 리더십이다

존경받는 인격 없이 목회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목회는 관계요 감동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믿는 자들 중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에 있어서 증거가 보여야 한다. 목회자는 말과 행동, 사랑, 믿음, 정절(purity)에서 본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

큰 목회자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고 다른 목회자와의 경쟁도 불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갈 길이다.

시대를 이끄는 목회리더십으로 성장하라

학습과 배움이 인간에게 성장을 주듯이 목회자들은 리더십을 배우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두뇌로 이루어진다”라는 에디슨의 명언처럼 천성적으로 타고난 천재보다는 성실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다(딤후4:15). 여기서 ‘전심전력(entirely)’이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Give yourself entirely to them).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완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목회자는 리더십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말처럼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속

목회는 관계이며 감동, 존경받는 인격 없이 불가능 리더십 개발에 완전히 헌신, 점진적 성장 이뤄가야

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5:20).

②사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파멸한다. 불의한 제도와 억압적인 법률, 가난한 자 착취와 공의의 부재, 과부와 고아 착취 등이 곧 사회상이 된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회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사10:1-3).

③영적리더가 타락하면 재앙이 생긴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해서 독주를 즐기며 술에 취하여 올바른 영적인 이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져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열겔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열겔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재판을 때에 실수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사28:7-8). 영적리더의 타락은

스도를 닮은 인격을 통해 존경을 받는다. 말 한마디라도 성령의 통제 하에 하는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다. “더러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엡4:29)는 바울의 권면이나 “은혜로 소금 쳐 언제나 맛이 나는 말”(골4:6) 등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난다.

목회리더십은 성경적 리더십이다

최근 뉴스에 보면 세속 리더의 인격보다 못한 성품을 가진 목회자들 이야기가 들린다. 목회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리더십이어야 한다.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해서 목회자 리더십은 언제나 성경이 주는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목회리더십은 목회자 자신의 고집과 독단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따라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성경의 사상과 교훈이 내면화된 리더십이어야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를 중심으로 쓰임을 받는다. 은사가 부족한 목회자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섬김의 장을 마련해주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다

사람이 날마다 성장해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따라 생각의 구조나 내용이 철저하게 말씀과 일치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을 입게 한다.

“오늘날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수3:7)는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목회자는 리더로서 열정을 다해 헌신해 나갈 때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팔로워들은 성장하고 있는 리더를 따라가며 진정으로 주님의 품성을 닮고자 할 것이다. 그 결과는 목회자 자신에게 영적인 축복이요 그 목회자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팔로워들에게도 큰 축복일 것이다. 지금은 목회자 리더십이 개혁되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치는 리더십으로 회복되어야 할 때이다. 시대를 이끄는 목회자 리더십으로 성장해 나가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딤후4:16).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침의 시간

사람들은 속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밖의 추운 날씨가 돼서야 자기 입김을 통해 알아차린다. 이렇게 더운 요즘엔 그 추운 날의 입김이 그림자다.

성경공부들이 다 방학을 해 간만에 애틀랜타에 있는 친구를 보러 다녀왔다. 그런데 친구를 보러가는 기내에서도 해야 할 일을 적고 다음 학기에 어떤 성경공부를 할까... 뭐 그 답에는 어떤 학기... 어떻게 선교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범벅이 되어 쉬지 못하는 자신을 본다. 그래,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이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끄집어내서 염려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여 인생에 종노릇하며 사는 일들을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사는 나로 돌아가자고 다짐해보며 비행기에 올랐다.

누군가가 보내준 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일 안하고 놀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진짜 영성의 사람이다’라고... 그렇다. 진정한 영성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대표기도를 인도하느라 열심히 기도하는 때도 나타나야 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고 놀 때도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다. 우리의 훈련이란 영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날버리는 것이리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다. 감정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분노와 격정과 두려움에서 놓일 수 없으리라.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늘 문제의 노예가 되어 살리라. 병에 붙들린 삶을 사는 한 나는 결코 병에서 치유 받지 못하리라.

우린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손에 꼭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손을 꼭 펴서 날버리는 열쇠는 바로 내가 쥐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우린 영으로서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살 길이 열리리라.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의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평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분명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삶의 이그젠텔(example)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꼭 날버리면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내 인생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텐데 말이다. 그 창조 역사는 그야말로 이 우주만큼 무궁무진 하지 않을까. 오늘, 내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카톡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저장해둔 많은 이름들이 어찌하면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되지 않은 이름들이라 해도 그 분들이 모두 모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령스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기원해본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0981,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양, 위, 상담: 오후 10:45
(주)일 11:00, (금) 오후 8: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형찬양: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 위, 상담: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엘파소영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킬린온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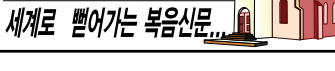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포기 할 수 없는 꿈의 성취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행운아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기는 쉬워도 그 꿈을 이루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던 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성취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자기를 방탕에 던지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원인을 자기 아닌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서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은 그 원인을 교회에서 찾으려 하고 목사에게서 찾으려 하고 교인들에게서 찾으려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웃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심지어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도 포기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간 데마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목회 현장에서 보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조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험거운 인생을 살아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be reap a harvest"(Gal6:9). 예수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쉬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포기해선 안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 소중한 것을 지키고 이루어 성취하게 하시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의 이 길을

가다가, 혹은 주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다가 보면 결국 성공자가 되고 꿈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 목회자입니다. 나름대로 목회의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애를 쓰며 목회를 하는데 아직도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 꿈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훌륭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해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간증서인 다이어트를 통하여 아주 감동적인 '메기 풀'이란 여성도의 간증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녀가 목이 좋지 않음을 느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후두암 환자입니다"라고 한 것임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가 병원로비에 잠시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쟁반에 찬 냉수 한 컵을 주더라

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냉수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그 컵 아래 간호사가 남겨둔 메모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ever give up and prayer" 곧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하세요"란 메모를 보고 그 여인은 감동을 받고 스스로 결심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꿈을 그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후두암을 치료 받고 완쾌되어 병원을 찾았다면서 간증을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혹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꿈을 붙잡고 압박 강가의 아픔처럼 씨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꿈을 성취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모든 것 위에 복음” 주제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 38차 정기총회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제 38차 정기총회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모든 것 위에 복음(고전15:3-4)"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 38차 정기총회 개회예배에서 준비위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임원선거는 총회 마지막 날 진행된다. 총회장 후보로 현 1부총회장인 이성권 목사(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 1부총회장 후보로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드교회)가 각각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첫날 10일 저녁에는 개회예배와 함께 김용혁 목사가 설교하는 저녁집회가 진행됐다. 주강사 김용혁 목사는 대전 노은교회 담임목사로 '아비 목회'로 유명한 목사다.

11일에는 Mark Clifton 박사(북미선교회 NAMB 시니어 디렉터)의 강의, 선택강의, SBC(남침례회) 총회 참가, 해외선교부(IMB)와 국내선교부(NAMB) 연합 선교축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는 Paul Chitwood 박사(국제선교회 IMB 총재)의 강의를 진행했다. 선택강의는 김영환 목사(콩코드침례교회 은퇴) "목회여정의 위기와 극복", 박인화 목사(뉴송교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최동갑 목사(달리제일한인침례교회)가 "도요다 식 목회", 송상호 선교사(IBM)가 "IMB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 조동선 교수(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조직신학)가 "신앙고백서를 통한 침례교회 신앙 연구", 박래위 목사(Journey of Faith Church)가 "숨은 유스 사역자 찾기"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12일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저녁에는 주강사 김용혁 목사가 인도하는 저녁집회와 김재이 목사의 인도로 청소년 축제가 진행된다.

한편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

해 2개 장소에서 열린다.

11일 새벽은 박종철 목사(기독교대한국침례회 회장)와 엄종오 목사(달라스침례신학대학학장), 12일은 임광 목사(위싱턴침례교회)와 최봉수 목사(슈가포츠침례교회)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총회가 끝나고 13일에는 총회 목회부 주최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인도하는 "QT 목회"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ITS 학위수여식 모습

ITS 2019 학위수여식...총12명 졸업

인터내셔널신학교(ITS 총장 이승현 박사) 제 37회 학위수여식이 8일 오후 7시 아카데미 카

뮤니티교회(래리 벨린저 목사)에서 열렸다. 프리쿠나 다마자 박사 사회

(정리: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주최 로마서 세미나에서 백석대학교 전 총장 최갑종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야기 '로마서'

아주사퍼시픽대 세미나, 강사 최갑종 교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거슨 박사)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한 로마서 세미나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교 LA캠퍼스(디렉터 도널드 브라운 박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최갑종

교수(전 백석대 총장)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최 교수는 "성경에서 로마서만큼 비중 있게 다룬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뤄졌다"며 "로마서는 로마서 서문과 결론부분처럼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

금을 갖고 예루살렘교회로 올라가 직전 고린도교회 인근에서 작성했다. 그리고 고린도 동쪽 겐그리아 교회에서 퇴폐를 통해 로마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아담과 후손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로마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창조세계 전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소망 구속 사랑의 스토리"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교회' (East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service times. Includes a central banner with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교도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문서 선교

하나님은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라는 작품을 편집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로라에 있는 새문교회를 방문하라는 음성을 주셨다. 새문교회는 매달 변화프로젝트에 기부금을 보내고 문서선교를 돕는 한국 이민교회이다. 영문도 모른 채 그 교회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1만부 주문하려고 했던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라는 책을 2만부 주문하라는 것이었다. 1만부를 주문하는데 5천불이 필요하지만 2만부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8천불이 필요하다.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3천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권인숙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예배시간 중에 알리라고 하셨다.

다음 날 새문교회는 3,160불을 변화프로젝트의 선교헌금으로 보내왔다. 그들의 넉넉한 후원으로 1만부를 더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교회의 한 교인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천불을 기부했다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다.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가 받은 복은 참으로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비전은 일반인들까지 “최고의 성인들”을 읽을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단지 목사님들을 통해 책들과 DVD들을 배포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최고의 성인들”을 읽기 원하거나 다른 재소자 가족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그 판매로 들어온 모든 수익금은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욱 많은 책들과 DVD를 형무소와 노숙자 쉼터에 보내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람들

재소자들의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 중 한 명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녀가 목사 사무실로 찾아왔다. “목사님, ‘최고의 성인들’ 책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교회에 안 다니지 7년이나 되었는데요...이제 다시 나가보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었다. 재소자들의 간증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 뒤편에 실려 있는 예수님 영접기도를 그녀와 함께 했다. 기도를 마친 후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성령님께

서 그 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삶을 인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다.

그 후 내 상사인 미스터 푸러도 “최고의 성인들” 책을 아담스카운티 경찰서장과 고관들에게 보냈고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주에서도 재소자들과 교도소 목회자들의 소감을 전해왔다. 그 중 잭슨 조지아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소개한다.

“이렇게 은혜 넘치는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의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다면 2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상도 못한 반응들에 힘입어 한편만 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 계속 시리즈로 출판하게 되었다. 하와이의 어떤 재소자는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며 한 달에 10불씩 선교헌금을 보내왔다.

콜로라도 프레블로 교도소에서 출판가가 왔는데 하나님이라면 듣기 싫어하고, 항상 화를 내며, 또 성격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하루를 읽을 책이 있느냐고 물어와서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라는 책을 주었다니 이들이 지난 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그 책을 읽고 예수님

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부터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늘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보았다며 책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해 왔다.

미연합감리교 목회 수련회에서 만난 조지아의 목사님은 재소자들이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앞으로 박스로 보내지 말고 트럭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4트럭 분량을 보내드리고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대로 목사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게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수련회에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면서 문서선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배 후 한 목사님이 나의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주겠다고 했다. 그대도 무료로 말이다. 그분 덕분에 스페인어로 된 내 책을 읽은 멕시코 재소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매주 미 전역에서 들려오는 재소자들의 간증은 한결 같다. 문서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더 많은 책들을 보내달라고 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구약 (11)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대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망한 것처럼 보였던 남방 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쓰는 ‘창출민 수삿삼왕’ 역사인 것이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 즉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역대기는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칙령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기록된 포로귀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가 끝나면 성경의 목록은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있던 남방 유다 사람들이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귀환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로귀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에스라1:1-3은 역대하 끝 36:22-23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1차 포로귀환단이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리더로 하여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이 때는 BC 538년경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먼저 제사를 지내

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2년 후 BC 536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성전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는데... 그들은 BC 721년 앗수르 살만 에셀에게 멸망당한 후에 앗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혼혈인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유다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BC 520년까지 성전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

개 선지자와 스가라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그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지으라고 했는지를 추궁합니다. 그러자



사는 마칩니다.

7장부터는 2차 포로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귀환의 중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다면, 2차 포로귀환의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1차 포로가 귀환한 지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단을 데리고 유다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로망은 다윗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성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던 레위지파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귀환단 중에서 레위사람들을 찾아보았으나,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어, 포로귀환단에 포함시킨 레위사람들의 숫자는 39명이었고, 레위사람들을 섬겼던 느디님 사람 220명을 찾아내어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리하여 약 1,775명이 귀환하였다는 내용이 8장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차 포로귀환단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고, 2차로 돌아온 에스라는 열심히 성경공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역대기’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뿌리찾기’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역대기는 그 처음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역대기’라는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경공부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정체성을 교육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개혁운동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9장과 10장입니다.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제보를 합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진상을 낱알이 조사하여 이방 여인과 섞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에스라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그가 했던 사역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dsukim@gmail.com

동성결혼, 이제는 지구촌 쟁점이다!

(3면에서 계속)

이처럼 “커밍아웃(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꽤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모든 국가가 보다 동성애 친화적인 법안을 도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동성애가 서양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경제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국에 주입하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우루과이는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했다. 그러자 몇몇 국가들이 우루과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세계은행은 9,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미뤄버렸다.

터키는 보수적인 이슬람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정책

을 유지하느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를 사형에 처하려했던 브루나이의 결정이 무슬림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가 이름을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한다.

분명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게 필연적인 결론은 아닐 것이다.

아메리카지역 현장의 구조변화의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2)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3. 아메리카 지역현황 및 선교의 동향

A. 각 지역 현황

이 내용은 GMS 2019,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에 실린 아메리카지역 각 지부장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역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1) 캐나다 지부

캐나다는 북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 나라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어류, 많은 삼림, 석유 등 광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캐나

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수백년 동안 캐나다는 광대한 식민지는 영국에 의해 통치되었다. 퀘벡주는 1763년까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다.

1800년대 후반에 이 식민지들은 점차 캐나다 자치령을 형성하여 통일되었고, 완전한 독립은 1931년에 되었다. 최근 캐나다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고립된 퀘벡으로부터 독립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다.

캐나다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세속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종교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갖

지 못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11).

2)미국 지부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북미 전역에 걸쳐 있는 광대한 국가이다. 또 미국은 군사력과 기술력, 농업에서의 강세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787년 헌법 제정으로 세계 최초의 연방으로 확장을 나가면서 50개주로 되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미국은 유일한 세계열강이 되었지만 지구촌에서 그 미래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새겨져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 어느 나라도 이처럼 폭넓고 금지되지 않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가 공적 생활로부터 종교를 제거하고자 시도함으로 이러한 자유는 방해받고 있으며 철저히 사회를 세속화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16).

3)멕시코 지부

멕시코연방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로 인구는 두 번째로 많다. 이 나라의 다양한 지형은 북부의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남부의 산악과 강우량이 많은 삼림까지 이른다. 석유개발과 산업 발전은 국민의 상류층 1/3에는 이득을 가져다주었지만, 빈민층 2/3의 가난은 더 심화되었다.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10-1917년의 혁명은 PRI당의 지도로 연방 민주주의로 이어졌으며, 이후 계속 여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부정 부패와 가난에 지치게 되면서 현재 상당한 수준의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멕시코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외국의 선교사들은 최근 들어서야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복음주의 교회는 놀랄 만한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교회 인구의 50% 이상이 20세 이하일 정도로 멕시코의 젊은 이들에 대한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43).

4)중미 지부

중앙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아메리카의 중앙 지역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육교에 해당한다. GMS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1989년부터 사역해 오고 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멕시코 밑에 남한보다 조금 큰 면적(108,889km)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17,120,223명(2018년)이며,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 카톨릭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 마야 원주민 부족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크게는 22개 부족의 부족어가 있다. 기독교 보급률은 25-30%되고 문맹률은 40%(인디언의 경우 80-90%)이다

■엘살바도르 공화국

(Republica de El Salvador)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이며 수도는 산살바도르이다. 면적은 21,041km 평방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650만명 정도이며 공용어는 스페인어다. 스페인어권 나라 중 유일하게 나라 이름에 정관사(E)를 붙인다.

이 나라의 특징은 5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과 독립 이후에 좌우대립과 군부독재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치열한 내전을 겪었다는 것이다.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살해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 국외로 망명이나 도피를 하였다.

사탕수수 외에는 딱히 생산물이 없어 경제가 낙후되었고, 악명 높은 갱단들이 활개를 치는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안전과 장래를 위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강행하고 있다(caravan). 카톨릭이 성행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신학적인 기반이 미약하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49).

kangsungchuel@gmail.com



선교 필지

케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타라카 부족 방문

마싱가에서 동북쪽으로 약 170km 정도 떨어진 타라카 부족은 케냐의 미전도 종족중 하나입니다. 마싱가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인구는 약 10만명이며, 메루부족에 속한 작은 부족입니다. 이곳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조나단 목사님이 툰아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교회를 전진 기지로 삼고 두 곳의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3월 10일 주일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한 키아나무티 교회는 성도 중 한 분이 기증한 땅에 교회당 기초 공사를 마치고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타라카 부족을

위한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비전이 있어서 저희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싱가 신학교

마싱가 신학교는 3월 15일에 27번째 졸업식을 했고, 17명(일반과정 9명, 특별과정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학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특별과정 1학년 학생들이 18명이 들어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대학과 기간이 같아서 특별과정에는 가르치지 못했고, 선교대학에서만 강의를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일반과정에는 6명의 신입생들이 들어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마싱가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무윙기 분교에서 17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특별과정 42명, 일반과정 24명, 무윙기 분교 17명 모두 83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일반과정에는 1학년 "신약개론1(4복음서)"과 2학년의 "선교학개론"을 가르치고 있고, 3학년 학생들이 8명은 피카에 있는 교회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잘 가르치고 잘

교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8월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와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3명의 학생은 조나단 목사님, 알리스 목사님, 그리고 제임스 목사님입니다. 계속 잘 훈련하고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학교는 유치원 2반과 초등학교1-3학년까지 33명의 어린이들과 4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구하지 못해 지난 2월 중단했던 초등학교 건축은 일꾼을 구해서 4월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실 4칸의 벽을 다 쌓았고 지붕을 얹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다 총당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마싱가 신학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을 길러 내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도록

-타라카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가도록

-선교사 훈련대학에 더 많은 훈련생들을 보내 주시고 이들이 잘 훈련받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닦는 아이들이 되며, 선생님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더위와 강한 햇빛에 지치지 않고 잘 일할 수 있으며,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됨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이애경 선교사 드림

isaiah.lee@aimint.org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22)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PROVERBS

"let the wise listen and add to their learning, and let the discerning get guidance"(1:5).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1:7).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do not forget my words or turn away from them"(4:5). (NIV 2011)

WORD & IDIOM

* the wise: 지혜 있는 자들 * learning: 학식 * the discerning: 지각(분별력)이 있는 자들 * guidance: 지침, 안내, 지도 * the fear: 경외, 두려움 * the beginning: 시작 * knowledge: 지식 * fools: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 * despise: 멸시하다, 경멸하다 * understanding: 이해 * turn away from ~: ~로부터 돌아서다, 외면하다, 떠나다.

GRAMMAR

(1:5) **let the wise** **listen and add** **to their learning,**
지혜로운 자들이 듣고(서) 더하다 그들의 학식에
and let the discerning get guidance.

지각이 있는 자들은 지침을 얻게 하자 → 지혜로운 자들은 (잠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학식에 더하게 (학식이 더 깊어진다는 의미) 하며 지각이 있는 자들은 (삶을 위한) 지침을 얻게 할 것이다.

* let은 누구에게 (~ 시키다, ~ 하게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사역동사로 분리된다. 그러나 make와 have 등 처럼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허락의 의미가 상당부분 강조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경우 let 앞에 주어(I)가 생략된 문장으로 보고 목적어(the wise & the discerning)가 (-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역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동사를 쓴다(주어 + 사역동사 + 목적어 + 원형동사 ~).

* the wise & the discerning: (the + 형용사)로 관용어처럼 쓰이는 명사형으로 복수로 취급한다.

(1: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주께 대한 두려움(경외) 지식의 시작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그러나 바보들 멸시하다

지혜와 교훈 → 주께 대한 경외함은 지식

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 The fear of the Lord &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fear>와 <the beginning>이 뒤의 전치사구(of the Lord)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다. 전치사구 (of ~) 는 (~ 에게 속한, ~ 에 대한, ~ 의) 등의 뜻이 있으므로 문맥을 따라 적절히 해석하면 된다.

(4:5)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지혜를 얻어라 이해를 얻어라

do not forget my words **or (do not)** **turn away from them.**

나의 말을 잊지 말라 또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말라. → 지혜를

얻고 이해를 얻어라, (그리하여) 나의 가르침(말)을 잊거나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말라.

*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은 각각 따로 따로 쓸 수 있는 독립된 문장이지만 comma (,) 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었다. 이때 (,)는 <그리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semicolon(:)은 (:이전의 문장과 관련하여 더 말하고 싶은 내용의 독립된 절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and, but, so, for, or, nor> 등의 접속사를 넣어 (: 이후의 문장을 해석하면 된다.

* <turn away from them> 앞에 <do not>이 생략된 것은 앞 문장의 <do not>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뒤의 문장에도 그 기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STUDY & THOUGH

■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여 얻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권고한다. 또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1:7, 9:10). 주님의 진노와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구현인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Do I live according to God's word of wisdom not according to my wisdom?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왕상13:15-19)

높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집에 데려 감으로써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엘에서 살았던 한 타락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과 삶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한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잘 지키다가도 끝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가버리면 결국 말씀을 어긴 것이 돼버립니다.

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왕상13:19)

본문을 통해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쁜 선지자를 만나 타락하고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

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서도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일대일로 결산할 것입니다.

수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왕상13:20-24)

오늘도 우리는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해 집으로 들어갔지만 상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랬으면 빨리 정진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식사 다하고 일 다 본 후에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치명

타를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간에라도 뛰쳐나오지 못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한번 꾀임에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목 여호와와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왕상13:25-27)

높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까? 자기가 타락하게 만들고 난 후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의 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든 후에 그 비참하게 된 장면을 또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시1:1-2).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오히려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금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왕상13:28-34)

본문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사자가 물어뜯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에도 이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꾀임에 넘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

았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고 높은 선지자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높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큰 깨달음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실패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토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왕상14:1-2)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여로보암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먼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즉시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들이 아파서 병을 고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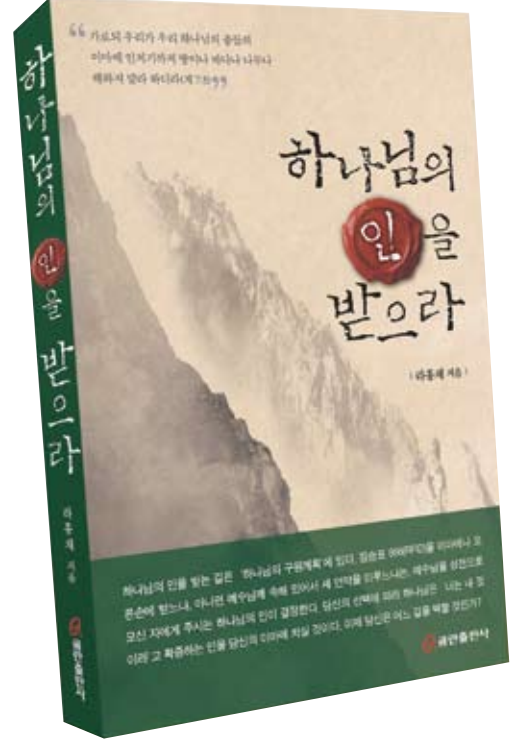
못하니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전에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가 생각났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선지자가 생각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변장해서 보내게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 번 방문자, 평생 교인 만든다!

처치리더스.컴, 교회방문 잠재적 교인 오게 하는 8가지 창의적 방법 소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은 것이며, 더 큰 문제점은 전도된 새 성도를 붙잡지 못하며,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데 익숙하지 못한 데 있다.

특히 교회 방문자들은 보통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스타벅스형: 교회를 옮겨오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스타벅스형: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회적으로 오게 된 사람 스터브형: 복음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된 사람 스터브형: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이사 등의 이유로 교회에 오도록 한 사람 스터브형: 중장기 출장 등 개인사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출석하게 된 사람 스터브형: 하나님을 믿고 싶은 동기에 의해 교회에 오게 된 사람.

그렇다면 교회가 관심을 갖고 피드백까지 깐깐하게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방문자들이 어떻게 느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가다. 다시 말해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환영을 받는 사람의 입장 즉 방문자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렉 앳킨슨(Greg Atkinson, First Impression Conference 창설자) 목사는 교회 개척과 관련해 60여 명의 사람들과 일하며, 교인 수가 1만5천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일반적이며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8가지 노하우를 말해준다(8 Reasons Why People Aren't Coming Back from a Secret Shopper).

1. 온라인 현관문(The Front Door)

교회의 물리적 내부에 첫발을 딛기 전에 방문자는 아마도 교회 인터넷사이트를 이미 찾아봤을 것이다. 교회마다 교회 사이트에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은 첫 방문자를 위한 부분이다.

일단 클릭하면, 질문사항이나 예배 시간·지리·주차 안내·바라본 점·복장 안내와, 방문자가 반드시 들리게끔 하거나 첫 방문자가 책자를 받을 교회의 안내 데스크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주차하기 좋은 곳이 있는가, 견과편 음식과 적절하고 실질적인 성경적 설교의 분위기인가, 청바지나 반바지는 괜찮은가 등과 같은 것이다.

2. 냄새

어떤 교회도 후각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은 단기 기억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후각은 장기 기억에서 가장 강하고 선명하다.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몇 년간 잊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 후각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교회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냄새를 풍길 가능성이 있다. 곰팡이 냄새는 나쁘고, 커피 냄새는 좋다. 표백제 냄새는 나쁘고 감귤 냄새는 좋다. 역겹고 나쁜 냄새를 풍기는 화장실을 가진 교회가 많다. 작은 부분의 관심 부족이지만 손실이 크고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새로운 마음으로 정문이나 교회의 입구에 가서 냄새를 잘 맡아보아야 한다.

3. 주차

팀 스티븐슨(Tim Stevens)이 생각할 때, 모든 성장 교회가 지녀야 하는 세 가지 '성장 단속' 중에 하나는 주차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팀 스티븐슨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문자 전용 주차가 정말 결정적이다. 교회에 첫 방문이 어렵다면, 이들은 오지 않

법이 혼동되고 시간이 길고 어려워지면 방문자가 교회에 다시 오지 않게 된다. 현명한 교회는 첫 방문자를 위한 접수대 표시가 있고, 자녀를 교회 부서에 등록하는 과정을 빠르고 순조롭게 만들어 놓는다.

일반 교회 출석자는 접수 전화기에 가서 전화번호를 누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먼저 방문자의 마음 헤아려야 웹사이트부터 냄새, 오갈 때 주차안내, 안전한 자녀교실...

을 것”이라고 말한다. 방문자는 조용히 와서 특별 주차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방문하는 걸 원해서 일반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근처에 주차하게 하면 고마워한다. 이것은 이미 처음 교회에 방문해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한 경험을 하는 이에게 친절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커다란 부지를 가진 큰 교회를 방문하는 이에게는 특히나 그럴 것이다.

4. 자녀

부서에 아이를 등록하는 방

거나 카드를 잘 끊을 수 있지만, 방문자는 이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도와줄 봉사자가 있는 유인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맑은 사람이나 봉사자가 아이의 반에 가서 어떤 상황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5. 무료 배부

자비로운 영혼을 가진 교회는 미묘하지만 강력하다. 엘라베마주 버밍햄 하일랜드(Highlands)교회 크리스 하지스(Chris Hodges) 목사는 이를 잘한다. 이 교회에서는 커피를 팔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

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정구역도 있다. 설교 CD도 무료로 배부한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돈을 받으며 설교 CD를 왜 아무도 사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축복하여 관대한 영혼을 만들어 내고 싶다면, 무료 커피를 주고 설교 CD를 주어야 한다. 또는 1년 내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다.

크리스 하지스 목사는 더운 여름날에는 교회 정문에 아이스크림 트럭을 대고 나가는 성도에게 무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6. 안전

성도로 위장한 방문자가 가족 문제에 있어서 큰 것 한 가지는 안전이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자녀의 교실은 깨끗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 안전은 또한 점검과정을 포함한다. 누군가 교실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들에게 안전 문제로 경호원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때에 원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려고 한다.

텍사스 주, 록웰의 레이크 포인트(Lake Pointe) 교회의 스티브 스트루프(Steve Stroppe) 목사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라이프(New Life)교회의 스티브 보이드(Steve Boyd) 목사처럼 어떤 교회는 지정 ‘방문자 부서’가 있다. 유다 주의 찰스 힐(Charles Hill)처럼 ‘만남의 장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애틀랜타 12스톤(12Stone)교회의 케빈 마이어스(Kevin Myers) 목사처럼 어떤 목사는 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만나 기도하기도 한다. 피닉스 언덕의그리스도교회(Christ's Church of the Valley)의 단 윌슨(Don Wilson) 목사처럼 약속하며 교회 주위를 걷기도 한다.

LA 모자이크교회의 어윈 맥매너스(Erwin McManus) 목사는 ‘쇼모입(After Party)’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가 나와 새신자와 만나기도 한다. 이, 큰 교회에서는 특히, 너무나 많은 방문객이 교회에서 들어서게 되면 예상되는 인기 록스타나 만나지 못하는 목사 낙인 효과를 지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8. 강한 끝맺음

누군가 교회에 들어설 때 영접부나 주차 봉사자가 ‘안녕하세요’나 ‘환영합니다’라고 단순히 인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른 단계로 가려면 예배가 끝날 때 ‘안녕히 가세요’나 ‘한 주 잘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봉사단을 두어 첫 인상을 남겨야 한다.

이제는 아침 시간대에 인사로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방문자를 보내게 된다. 이 8가지들을 하면 첫 번째 방문자가 돌아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을 더 자주 하게 될 것이다.

7. 목사님과와의 쉬운 만남

담임 목사님과 잘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것을 말해준다. 미국 대형 목사초차도 예배 후 성도와 만나 안고 인사하려는 국제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는 아침 시간대에 인사로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방문자를 보내게 된다. 이 8가지들을 하면 첫 번째 방문자가 돌아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을 더 자주 하게 될 것이다. <박준호 기자>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듯한 시선을 노래에 담아

'노래를찾는사람들' 전 멤버 이혜원 2집 'Flying High' 출시

7년 만에 Heavenlee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이혜원의 2집 'Flying High' 가 출시됐다.

이번 앨범은 CCM곡으로 2012년 발매된 1집 음반 'Embraced in Harbour Pointe' 에 이어 7년 만에 내놓았다. 이

앨범은 1집 앨범 출시 후 오랜 지병이었던 만성신장병으로 남편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 이전과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됨으로 삶의 터닝포인트를 통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가 인간으로



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역작이다.

음반 동명 타이틀 곡 'Flying High'는 피아노와 더블베이스의 단순한 악기 편성과 담백하고 절제된 보컬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곡은 '하나님, 주님'처럼 직접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사를 쓰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내가 꿈꿔왔던 그곳으로/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두려움

없이 걸어갈 것을 나지막이 고백하며 결코 녹록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천국의 키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곡이다.

힘찬 가스펠 스타일의 아카펠라로 시작하는 'Dust off your knees'는 재즈 보컬을 전공한 가수의 달란트를 심분 발휘한 레트로팝 스타일의 노래로 경쾌하지만 비장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역설한다.

두 곡 모두 1집 음반에 비해 음악과 내용 양쪽 모두 더 대중적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아티스트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충실히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CCM 팬들에게 한층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며 솔로가수 겸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ATS 정원원



ABHE 정원원

tracs TRACS 정원원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증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D.Miss)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신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교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기독교 상담학부 공개강좌

참석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입학금 면제 혜택

주제: “진정한 나를찾자”
장소: 그레이스 라이브러리 GL1 강의실

일시: 6/22/2019 토요일, 오전9:30-오후1:00
LA Extension 강의 센터 운영(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대상:목회자부부, 신학생, 평신도및상담에관심있는모든분들

강좌1: 참 자아발견을 통한 중독치유(술, 마약, 도박, 인터넷, 성, 종교중독 치유)
권오균 교수(Rev. Paul Kwon, Ph.D.)
주정부 인정 중독치유 상담사:CATC-V/LAADC-CA - 풀러신학대학원박사(Ph. D.)

강좌2: “나라는 넌 누구냐?”(육하는 성질 치유)
리디아 전 교수(Lydia Chun Psy.D.) - 공인 임상심리학 박사, BIOLA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